

'하이브리드가 대세' ... 올해 미국 판매량 50% 증가



▲ 포드 F-150 하이브리드, 사진=포드자동차

의 하이브리드 버전은 이제 휘발유 차량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낸다" 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미국 판매량은 올해 1~2월 50%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량이 13% 늘어난 것에 비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판매전에 입고된 후 팔려나가는 기간이 전기차보다 3배, 휘발유 차보다 2배 빠르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과거 '기름 덜 먹는 차'로만 인식되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은 순수 전기차를 앞서는 최고 인기 차량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20여년 전 도요타 프리우스가 처음 선보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과 배터리 모터를 결합한 형태의 자동차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더 강력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차량을 내놓으면서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됐다.

하이브리드 차량 선두 주자인 도요타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하이브리드 버전을 제공한다. 신형 캐리나 시에나 미니밴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하는 실정이다.

폭스 오토모티브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 모델 수는 최근 5년간 40% 증가해 올해 7종이 됐다. 대형 SUV나 픽업트럭, 오프로드 차량, 스포츠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포드 자동차의 가스 및 하이브리드 부문 책임자 앤드류 프릭은 "하이브리드는 이제 휘발유 차량과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없다. 예를 들어 포드 F-150 픽업

전기차를 사려다가 주행거리와 충전시설 문제로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는 경우도 많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요타 차량을 판매하는 더그 에로 사장은 "전기차 후광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들은 종종 전기차에 대해 문의하다가 충전기 사용 문제 등을 우려하며 포기한다" 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 볼보, BMW, 스텔란티스 등 업체들이 플러그인 모델을 출시한 것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며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기술개발을 지체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제너럴 모터스(GM)는 전기차 개발에 전념하다가 이제는 북미 시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닛산 자동차도 다른 지역에서만 판매하던 하이브리드 차량을 미국에서도 판매하려 하고 있다. 폭스바겐 북미 최고경영자 파블로 디시는 미국 판매 차량 라인업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드는 향후 5년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4배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2021년 말 출시한 소형 픽업트럭 매버릭의 하이브리드 버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신차가 급락, 내연 자동차와 비슷해져

미국에서 지난달 전기차(EV) 신차 가격이 2000달러 싸지면서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이 5000달러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됐다. 전기차 가격이 싸지는 것은 배터리 가격 하락,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 인하 경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테슬라 모델 3, 사진=테슬라

19일 '뉴스1'이 워싱턴포스트(WP)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기차는 첫 시장 출시 이후로 엄청난 프리미엄(웃돈)을 지불해야 했다. 2년 전만 해도 휘발유 자동차보다 평균 1만 7000달러가 더 비쌌다.

하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 폭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달은 5000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가격은 지난달 신차 평균가보다 11% 높은 수치다. 또 한 모델의 차를 기본만 하느냐 모든 옵션을 다 하느냐 정도의 금액 차이밖에 안 된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는 특히 가격이 너무 저렴해 거의 휘발유 차 가격 근방까지 떨어졌다.

전기차 가격 하락 원인 일부는 생각만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지 않아서다. 초기에 얼리어답터들의 열정으로 움직인 전기차 시장은 이제는 충전과 가격에 신경 쓰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며 재고가 많아진 자동차 대리점들은 이제 전기차를 할인판매하고 있다. 가격 하락을 선도하고 있는 곳은 역시 테슬라로, 2023년 1월부터 인기 모델 Y

SUV와 모델 3 세단의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해 모든 전기 자동차의 평균을 끌어내렸다. 예를 들어, 2023년 초에 4만 7000달러였던 기본 모델 3 세단은 현재 3만 9000달러에 판매된다. 프리미엄 모델 Y는 같은 기간 7만 달러에서 5만 2500달러로 떨어졌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은 57개로, 전문가들은 경쟁사가 많아지면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한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약 80%를 점유했지만, 현재는 50%를 약간 넘고 있다. 테슬라의 움직임을 따라 대부분의 경쟁사도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또 다른 가격 인하의 동력은 배터리 가격 하락이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배터리는 2008년보다 오늘날이 90% 저렴하다. 배터리는 차량 비용의 40%를 차지한다.

지난달 전기차 평균 가격이 2000달러 하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차의 가장 높았던 소비 장벽인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술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더 효율적인 제조로 인해 이르면 2027년에 휘발유 자동차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